

미국 기업들의 무선통신기술 채택 동향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원 김혜정
(T. 570-4083, khjung@kisdi.re.kr)

1. 개요

인터넷 연결 케이블을 챙겨야 했던 사무실이나 집 안에서 선 없는 네트워크를 구현하고, 회의실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기술 정도로 인식되었던 무선랜이 최근들어 기술적인 도약을 이루면서 그 적용 범위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WiFi로 대변되는 무선네트워크의 가장 큰 변화는 이 기술이 단순히 기업용 네트워크에 머물지 않고, '서비스'에 적극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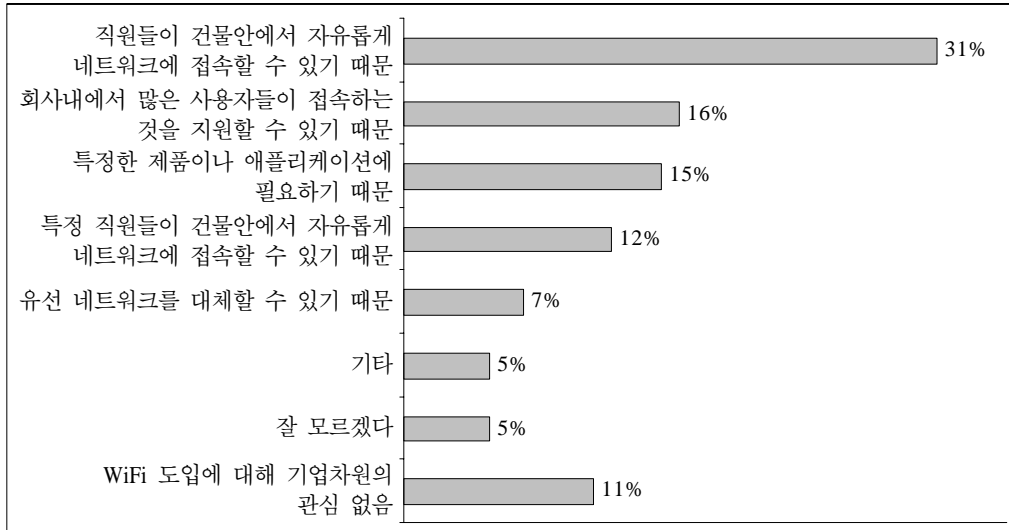
또한 u-시티 구축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외국처럼 도시 전체를 커버하는 WiFi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고민이 생겨나고 있으며, 국방분야에 무선랜을 도입하고, 지하철 승강장이나 고속도로에 무선랜을 구축해 유선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다. 본 고에서는 미국 기업들의 무선통신기술 도입 현황과 주요 조사 결과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고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미국 기업들의 무선통신기술 도입 현황

최근 많은 기업들은 IT의 발전과 더불어 이에 따른 비용증가와 치열해진 경쟁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기업들은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WiFi, WIMAX 등 무선통신기술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무선통신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기업들의 기술책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직원들이 내부에서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WiFi를 회사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응답자의 31%가 답했다. 구내에서의 원활한 접속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유가 16%로 두 번째로 많았고, 해당 기업에서 개발하는 제품이나 애플리케이션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WiFi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15%였다.

(그림 1) WiFi를 기업에서 사용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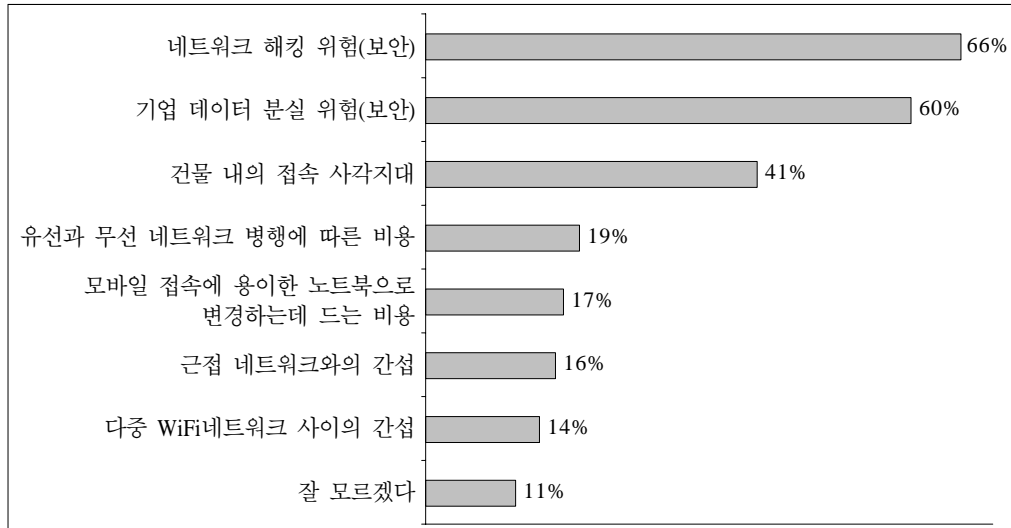
현재 기업에서 WiFi를 도입하여 사용중이거나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는 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60%는 이미 WiFi를 사용하고 있었고, 6%는 1년 안에 도입하여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는 앞으로 WiFi 도입 계획에 대한 심의를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WiFi를 이미 도입한 기업의 경우는 네트워크에서 46% 정도를 WiFi로 커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용자 중 64%가 WiFi의 활용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WiFi 사용에 가장 큰 장애물은 보안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침입과 관련된 사항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가 66%, WiFi로 인한 기업의 데이터 유출 문제에 대한 인식이 60%, WiFi 접속의 사각지대가 문제라고 인식하는 응답이 41%였다.

이에 반해, WiMAX는 WiFi 보다 기업측면에서의 활용이 다소 적게 나타나고 있었다. WiMAX에 어느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 응답자 중 18% 정도가 WiMAX 도입이 기업의 네트워크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은 WiMAX로 커버되는 지역적 범위, 무선통신 서비스 비용 감소, VPN, 통신, 데이터 접속 지점 확대, 속도와 안정성 문제 등이 향상된다면 WiMAX 도입을 고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WiFi 활용의 장애물



3. 결 어

지금까지 미국 기업들의 무선통신기술 도입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많은 기업들이 WiFi 등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의 확산에 있어서는 “보안”이 중요한 이슈였다.

하지만, 무선랜의 컨트롤러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업들이 적은 비용으로 안정된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네트워크 구축비용을 감소시키고, 업무 생산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무선랜의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보안’ 문제 역시 더욱 강력한 컨트롤러가 등장하고, 전문 보안솔루션들이 등장하고 있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무선통신기술은 유선 네트워크의 보조재로서가 아니라, 유선의 허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훨씬 더 큰 확장성과 가능성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로서 부상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AT&T, “Emerging Technologies in the Enterprise: A Qualitative Review of Survey Findings”, 2007.
- [2] 전자신문, 디지털데일리, 헤럴드경제 각 호.